

論述考查와 高等學校教育

申 圭 浩

(培明高 敎師)

I. 序 論

文敎部の ‘大學入試制度改善案’이 발표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3월 23일, '86년도 전국 대학별 ‘大入論述考查要綱’이 확정 발표되었다.

體育大學을 뺀 99개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번 결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각 대학들의 고민이 매우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신문이 ‘大學의 두 고민’이란 표제로 ‘反映率·채점 방식 결정 難航’을 기사로 다룬 것¹⁾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논술고사의 확정 공고는 高等學校측에서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논술지도는 고사하고 作文敎育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표류하는 論述고사’²⁾나, ‘高校 論述指導 갈광질광’³⁾ 같은 신문 표제가 이를 실감나게 말해 주고 있다. 거기다가 세칭 일류고교에서는 지금까지 거둬 온 입시 성적에 작용할 ‘變數’ 때문에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논술고사의 근본 취지는 환형하면서도 입시를 맡고 있는 교사로서 걱정이 크다’⁴⁾는 某고교 교사의 말

언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고 보면, 大學과 高校는 論述考查에 관한 한 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다 하겠다. ‘韓國 大學敎育協會’에서 筆者에게 발표할 기회를 준 것도, 논술고사에 따른 같은 고민을 高校와 함께 풀어 가려는 뜻으로 받아들여, 분에 넘친 줄 알면서도 일단 붓을 들어 보려고 마음먹은 것이다.

II. 高校에서의 對應方案

敎育은 ‘自然의 理想化’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의 直視와 미래의 목표를 아울러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을 무시하면 失敗의 苦杯만 마시고 물러가야 하는 데 반하여, 미래가 없으면 소극 없이 빈손으로 돌아서게 되는 법이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여건은 어떠한가? ‘7·30 敎育개혁’에 의해 大入本考查가 없어지자, 어쩔 수 없이 4지선다형 문제 일변도로 급선회 해버려 高次的인 思考力 양성은 물론, 교과서 외의 독서나 생활 작문까지도 돌보지 않았던 것이 슬직한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論述指導는 거의 ‘無’나 다름없는 상

1) 한국일보, 1985. 3. 2, 참조.
2) 敎育新報, 1985. 3. 25, 인용.
3) 東亞日報, 1985. 3. 23, 인용.
4) 한국일보, 1985. 3. 12, 인용.

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高校 교사들은 萬難을 무릅쓰고 論述指導에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되니, 그 이유인즉 이 새로운 제도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채택된’⁵⁾ 것인 데다가, 어차피 새해엔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치열한 입시 현장에서 成敗問에 어떤 결과를 보여 주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교에서의 논술지도의 목표 설정이 당장 눈앞의 일이나 安住하는 近視眼的·消極적인 것이 아니라, 망원경처럼 앞을 멀리 내다보는 積極적인 것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筆者도 本稿의 ‘對應方案’을 서술함에 있어, 지난번의 ‘論述指導의 理論과 實際’⁶⁾라는 試論과 되도록 중복을 피하여,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방안을 탐색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學習姿勢 確立

학습의 효과를 제때로 거두기 위해서는 배우는 이로 하여금 배우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선결 문제다. 특히 단기간에 논술력을 극대화해야 할 금년 3학년 학생들에게는 수험생으로서의 자세 확립이 더욱 절실하게 요망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거론되어야 한다.

(1) 메모장의 準備 活用

글의 素材 발굴이나 思考力·批判力 양성을 위해 메모는 꼭 필요하다. 체홉의 메모가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거니와, 異河潤이 스스로를 ‘메모狂’이라 불렀던 것도 좋은 교훈이 된다.

訓話內容, 讀書內容,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을 적고, 생각을 가다듬어 비판해 보는 것은 글쓰기에 매우 유익한 일이다. 적은 메모를 자기 전에 읽어 보고 日記를 쓰도록 발전시키면 더욱 좋다.

(2) 個人文集의 準備 活用

글쓰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늘 쓸 기구가

가까운 곳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처럼의 쓰고 싶었던 생각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기가 일쑤다. 그래서 개인 문집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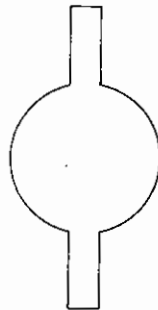
낙서하는 기분으로 생각나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적어 보기만 해도, 글과 한결 친밀해져 글쓰기에 따른 공포심을 씻어 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다음과 같이 권한 이도 있다.

한 잔의 코오피를 마시듯 편안한 기분으로, 마음속에 남은 이미지를 알고 있는 말로 바꾸어 본다. 이렇게 하여 쓴다는 작업은 시작하도록 한다면 어떨까.⁷⁾

이렇게 자유롭게 써 보다가, 차차 3단 구성의 글쓰기로 유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시작·중간·끝’의 원리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序論·本論·結論으로 짜여지는 論述構成의 原理와도 符合되기 때문이다.

〈그림 1〉



하바드 大學의 한 講師는 문장의 구성 단계 비유를 ‘열쇠 구멍’으로 비유한 바 있는데,⁸⁾ 大學 受驗生에게는 ‘大學의 門’을 여는 ‘論述의 열쇠’를 상징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

(3) 社說 읽기 권장

論述은 어떻게 쓰느냐에 못지 않게 무엇을 쓰는가도 중요한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많은 자료를 ‘읽기’에 의해 얻게 되는 바, 그런 읽을거리로는 신문사설이 제일 낫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설이야말로 論述의 산 모범이기 때문이다. 매일 사설을 읽으면 새롭고도 풍부한 지식을 얻

5) 東亞日報, 1985. 3. 19, 인용.

6) 教育新報, 1985. 2. 18, 참조.

7) 石川弘義, 知的文章の書き方(徳間書店, 1979), 27面 인용.

8) 板坂元: 何を書くか, どう書くか(光文社, 1984), 158面 참조.

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論述의 요령까지도 터득하게 되는 利點도 있다.

社說을 읽을 때에는 그냥 막연히 읽지 말고, 중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 연필로 표시해 가며 읽는 것이 좋다.

이에는 <보기 1>과 <보기 2>와 같은 두 방법이 있다.

<보기 1> 重要하지 않은 部分을 排除하는 方法

【국제수지의 방어(방)】무엇보다 중시(중시)해야 할 다 시점에서 (본다면) 중요불급(중요불급) 풀어나 사치품과 수입에 대한 대책은 불가피하다. (수입을 개방하여 산업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며 무역 상대국과의 교섭도 중요하지만 무리는 우선) 국제수지뿐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치품에 대한 수입(수) 억제(억제)하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

1차로 — 줄은 곳과, 2차에는 ()로 묶고 3차에 가서 []로 묶으면 끝까지 남는 것이 요지가 된다. 이런 훈련을 거듭해 가던 要旨把握은 물론, 자신이 글을 쓸 때에는 不必要的한 것을 배제하여 간결한 글을 쓰는 습관이 붙게 된다.

<보기 2> 重要的 部分을 찾는 方法

수입자유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이(이)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무역정책면(무역정책면)에서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 수출(수출) 상대국들은 우리쪽의 수입개방을 요청(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개방은 무역(무역) 상대국으로부터 호혜적인 대우(대우)를 받으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문을 닫아 놓고 남(남)더러는 문을 열라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도 남의 출(출)진을 사면서 다른 나라(다른 나라)도 우리 상품을 사라고 할 때 말(말)밭이 서게 되는 것이다.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수입개방(수입개방)은 필요하다. 관세(관세) 및 무역장벽(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산업(국내산업)을 보호(보호)하다보면 산업은

우선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줄은 그 다음, 論旨展開 과정을 더듬어 —>표로 연결해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 줄은 한 번 더 치고, 특히 강조된 語句는 □로 쓴다.

이런 社說 읽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가 같은 제목으로 논설을 써 보거나 비판하는 글을 써서, 학습 문집을 만들어 돌려 읽도록 지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2. 創意的인 論述指導法 開發

피교육자들의 학습 자세와 함께 교육자들의 지도 자세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니, 교육이란 ‘師弟同行’ 함으로써 眞價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여,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에 임하는 것이 論述指導의 要諦라 하겠다.

(1) 論述教育課程作成과 年間計劃樹立

교육에는 무엇이냐 가르칠 내용과 진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課程을 무시하고 교단에 서면 臨機應變으로 시간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모르나 成果가 의심스럽고, 計劃이 따르지 않으면 徒勞에 끝나기 쉽다.

따라서 論述指導도 나름대로 알맞은 課程을 짜 주어진 與件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령 週 1時間의 作文時間이 주어져 있고 檢認定 교과서가 있다면, 일정 기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자신이 만든 論述課程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교과서가 없을 때엔 새로운 교재를 開發해야 하고, 그 밖에 補充授業이나 放送授業을 할 경우에는 과정이나 계획이 또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 때, 都下 각 新聞에 연재되고 있는 大學教授들의 지도 내용이 큰 도움을 줄 것이나, 아직은 作文課程일 뿐, 論述課程이 언제부터 게재될지 모르므로, 무작정 그것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보기 3>과 같은 세 단계로 論述課程을 엮어 보았다.

<보기 3> 論述課程

I. 論說文的 實際的 要領

1. 논설문의 성격과 작성 순서
2. 주제 설정 및 문제 제기
3. 자료의 수집·활용

4. 개요의 작성
5. 구성의 형태
6. 개념의 규정과 정리
7. 문단의 진출과 연결
8. 논술과 추론
9. 오류의 경계
10. 퇴고의 실제

II. 大入論述의 攻略要領

11. 대입논술고사의 성격과 실시 경향
12. 외국의 논술 출제 유형
13. 고교의 출제 유형별 지도사례 (1)
14. " (2)
15. 논술고사의 과제내용과 문제형식
16. 만점 관문 돌파 작전 (1)
17. " (2)
18. " (3)
19. " (4)
20. " (5)

III. 修練問題(1~10)⁹⁾

I은 논술문의 성격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고, II는 大入論述征服의 기교를 익히게 하는 것이며, III은 演習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II의 '만점 관문 돌파 작전'을 더 늘릴 필요성을 절감하여 10개 항목을 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III은 일간 신문 사설 논제를 사용했던 것을, 정도를 더 낮추어 고교생의 비근한 생활 문제로 代替하고 있다.

(2) 文話 및 掛圖의 作成 活用

수업의 성과는 학습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참신한 교육 자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있게 듣고 모방해 볼 만한 文人이나 作品에 관한 情話內容을 수집하여 수업중이나 명상의 시간에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벅차나,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보기4>는 筆者가 시도해 본 文話의 例이다.

<보기 4> 文話例——國語辭典·百科事典의 活用

자습서가 범람하고 있는 요즘엔 학생들이 국어 사전이나 백과사전을 멀리하고 있으나, 이는 올바른 학습 태도가 아니다. 손으로 익힌 제주는 오래 간다

는 말이 있듯이, 사건을 찾아 외워 둔 말뜻이나 지식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틈틈이 사건을 펼쳐 능동적으로 익혀 둔 단어나 지식은 문장 수련을 위해서도 매우 큰 도움을 준다. 그것은 사물의 묘사나 설명을 위한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를 수 있는 힘이 붙기 때문이다. /플로베르는 이 세상의 물건은 나무 하나 돌 하나 똑같은 것이란 없으니, 이를 표현하는 단어도 가장 알맞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一物一語說'을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사건의 뜻대로 철저하게 자기 말을 고치는 습관을 지니고 있어, 原稿의 推敲만이 아니라, 인쇄 과정에서까지 修正 아닌 推敲, 나아가서는 添削 改行을 함으로써, 인쇄공들로부터 지독한 혐이란 惡名이 높았으나, 사건과 친했던 철저한 퇴고 덕분에 不朽의 걸작을 남기게 된 것이다.

한편, 마크 트웨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 오고 있다.

說教을 듣고 나서, 트웨인은 비웃는 표정을 지어 말했다. "아주 감동했습니다. 단, 한 자 한 자가 모두 내가 애독하고 있는 책에 써어진 것들이기는 하지만." 설교자가 "그럴 수가!" 하고 분노하자, 트웨인은 "허면, 즉시 증거가 되는 책을 보내 드리죠." 라고 돌아가 버렸다. 후일 설교자 손에 들어 온 것은 한 권의 國語辭典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설교하기를 지나치게 뽐내는 이에 대한 공격용 詭辯의 예이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국어 사건의 힘이 莫強함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지…….

文話와 함께 중요한 구실을 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掛圖이다. 論述의 定義나 性格이 애매하게 보이는 때일수록, 視從에 호소하는 제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생각을 짜내어 공동으로 작성하면 값진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5>가 바로 그 예이다.

(3) 誠意 있는 添削指導

학생들의 論述力 向上을 위해서는 교사의 성의 있는 添削指導가 최대의 힘이 돼 준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이치는 여기서도 眞價를 발휘한다.

수업중에 단 한 사람의 글이라도 고쳐 주고, 수업 후에 1日 1篇씩이라도 고쳐 주고 短評을

9) 拙著: 桂冠大入論述考査(現代文藝社, 1985), 차례 인용.

10) 清水 勤: 議論・討論に必ず勝つコツ(實業出版社, 1983), 66面 참조.

〈보기 5〉 掛圖의 例; 論述의 基礎

논술은 사실에서
논거를 찾아내어
주장을 정당화하
는 행위이다.



같은 사건에서도
착안하는 사실에
따라 주장이 달
라진다.

(보루투스)

〈사실〉 시이저는 황제가 될 야심을 품었다.
〈논거〉 그가 황제가 되면 우린 노예가 된다.
〈주장〉 그를 죽인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

(안토니오)

시이저는 왕관을 세 번이나 거절하였다.
그에게는 황제가 될 야심이 없었다.
야심 없는 이란 죽인 행동은 부당하다.

적어 줌으로써, 作者는 물론 다른 學生들까지
들려 가며 배우고 익히게 한다면 성공은 틀림없
다.

다음 〈보기 6〉을 보더라도, 添削後의 文장이
前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역력히 알
수 있다.

月 1회 정도 고3 학생 전원이 참가하여 전교사
가 체점에 임하는 교내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
이 좋겠다.

그리고 학기별 1회씩은 獎學協力 회원교끼리,
또는 私立校와 公立校끼리의 연합 모의고사의
실시도 모색해 볼 만하다.

〈보기 6〉 添削指導 事例

은 것이나 다들 없는 힘든일을 걸어야한
지금부터 나는 죽었다. ←
요 먹칠 사이 공부문 해 봤지만 그
렇게 잘 되지는 않으나 하지만, 지금
기회는 이 번 뿐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정신을 차려 수 치
는 것이 다.

- 〈조언〉 ① 글을 쓴다는 것은 말은 그대로
적는 것과는 다르다.
② 추상적으로 쓰는 것보다 구체적으
로 실감나게 쓰는 것이 좋다.

日本에서는 전국 규모의 모의 논술고사가 실
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한 예를 들면
旺文社에서 주관한 작년도(1984학년도)의 國·公
立大, 私立大, 短期大(初大)別 ‘小論文 테스트’
가 7月(7日~29日)과 11月(10日~18日)에 있었
다 한다.¹¹⁾

그 밖에 모의고사와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글
쓰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白日場이나, 논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웅변대회, 토론회 등의
행사도 계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模擬論述考查의 實施 運營

학생들의 論述實力을 확실히 길러 내기 위해
서는 모의 논술고사를 계획, 실시해야 할 것이
다. 그 이유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게 하여 더욱 精進하게 하는 한편, 지도교
사로 하여금 수업을 반성하여 새로운 학습법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에 앞서,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가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지도교사에게 상담 지도를 받
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Ⅲ. 大學에의 要望事項

필자가 大學 당국에 바라는 바를 한마디로 말
하건 高校에서 기울일 努力의 보람이 水泡로 돌
아가 不信感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부연해 보겠다.

1. 合理的인 出題

大學入試의 출제 경향은 高校教育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매우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출제 유형으로서
자료의 有無에 따라 資料提示型과 單獨課題型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필자의 所見으로는 궁극적인

11) 59全國大學入試問題正解—Japanese, (旺文社, 1984), 廣告 참조.

안목으로 볼 때 두 가지를 모두 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그 이유는 논술고사가 의도하는 종합적·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제재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資料提示型은 大學(校) 전체가 공통 출제로 과하고, 單獨課題型은 志願學科別로 특성에 맞게 달리 출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86학년도에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채점도 번거롭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 때에는 資料提示型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니, 그것은 여러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에 보다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日本의 入試 小論文의 결과를 보더라도 資料提示型이 7:3으로 우세했으니, 이것도 그 효율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¹²⁾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 지원학과별로 수험생의 전공과 관련 있는 출제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출제는 高校에서의 進路探索을 촉진·심화시켜 주어, 적성을 일찍 확인하여 지원학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현재 입시에서 빚어지고 있는 點數에 의한 눈치 지원을 줄여, 교육력 나아가서는 국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출제는 學力考查 성적의 일부 학과에 대해 辨別的 加重值 적용을 역설하는 주장과도 맥을 통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專攻과 관련을 맺는 일은 곧 특정 교과의 중시에 의해 대학 修學能力을 측량하는 것과 五十步 百步의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原稿 분량과 作成 시간에 있어서는 길이가 늘수록 수험생의 실력 평가가 용이해지는 반면, 채점 노력은 가중된다. 입시가 많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단시일내에 하는 것으로 보면 짧은 분량이 좋으나, 수험생과 학부모의 채점 항의에 무심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분량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함이 불가피한 것 같다.

日本에서는 분량이 다양하나 800자를 上限 또는 下限으로 한 것이 전체의 2/3 정도인데,¹³⁾ 우리나라 表記法이 띄어쓰기로 1割 정도 늘어남을 감안하면, 결국 900자 정도로 환산되어, 200자 원고지로 4.5매가 되니, 아마도 5매 이내로 함이 알맞을 것 같다.

소요 시간에 있어서도 2/3 정도가 90분 이상을 주고 있으니,¹⁴⁾ 우리도 90분 내지 100분은 주어야 할 것이다.

2. 公正한 採點

入試의 成敗는 公正한 채점 與否에 달려 있다. 公正한 채점을 기하기 위해서는 出題의 主眼點과 觀點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考查實施前에 公表해야 한다.

좀 낱은 자료이나 日本의 한두 大學의 主題主眼點과 觀點을 例示해 본다.

- 主眼點: 주어진 과제에 대해 얼마나 줄거리를 세워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는가? (岩夕大·人文社會, 1979年度)
- 觀 點: ① 論旨의 明確度 ② 主題의 把握法 ③ 表記(誤字·脫字) (信州大·教, 1979年度)¹⁵⁾

이러한 主眼點과 觀點에 따라 評價項目과 基準을 설정해야 하는데, 출제 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도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는 <보기 7>과 같이 20點 配點의 資料提示型의 경우를 예시해 본다.

<보기 7> 評價基準

항 목	기 준				
1. 주제 참신도	1	2	3	4	5
2. 자료 활용도	1	2	3	4	5
3. 논지 전개력	1	2	3	4	5
4. 문장 표현력	1	2	3	4	5
총 계	11점 / 20점 만점				

12) 編輯部編: 入試小論文(教學社, 1984), 5~6面 참조.

13) 同上

14) 同上

15) 速水博司等: 受験小論文·作文演習(有精堂, 1984), 7面과 9面 인용.

채점진 구성에 있어서는 각 항목마다 분담하되, 두 사람씩 배당하는 방법이 分業의 原理에 맞아 合理的인 것이다. 그러나 25點 이상 配點하는 대학에서는 전체적인 印象을 채점하는 구성원을 하나 더 첨가시키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日本에서는 채점 기준 없이 印象採點으로, 그것도 꼭 뽐고 싶다고 全員一致된 답안 작성자는 第1次 共通試驗(學力考查)의 성적이 낮더라도 入學査定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¹⁶⁾ 우리에게 示唆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그 밖에 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 재개할 땐 반 시간 정도, 시험 삼아 읽는 시간을 가지면 채점의 시작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에서 달라지기 쉬운 판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컨대 私心 없이 所信껏 채점해 줄 것을 요망한다.

IV. 結 論

本稿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淺學非才를 돌봄이 없이 重言復言 늘어놓은 것이, 마치 孔子님 앞에서 文字를 쓴 듯한 송구스러움을 떨칠 길이 없다. 다만 論述考查에 따른 苦悶을 함께 풀어 보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은 지금도 변함 없었다.

요컨대 論述考查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걸어가라’는 俗談을 거울 삼아, 필경 高校에서는 창의적인 지도법을 탐구하고, 大學에서는 公正한 評價法을 개발하여 社會의 信賴를 획득함으로써, ‘國民的 合意’로 마련된 새로운 入試制度를 成功裡에 치러내서, 敎育의 自律化에 작으나마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내디딜 기틀로 삼아야 하리라고 굳게 믿어 마지 않는다. *

16) 山口 正等：小論文の書き方(株式會社 ナツメ社, 1981), 32面 참조.